

구역 예배 교안 2024.07.14

1. 신앙고백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2. 찬양과 경배	뒷면의 찬양 또는 준비해 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시간 성령님의 크신 임재를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3. 기도	다함께 구역예배와 모임을 위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고 인도자가 마무리 기도를 드립니다.(2번 찬양과 경배와 3번 기도는 연결하여 진행)
4. 말씀	본문: 로마서 8장 12-14절 제목: 신자의 성화
5. 질문과 나눔	말씀을 듣고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나 결단한 것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6. 치유와 회복의 시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자의 긴급하거나 중요한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2) 치유집중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유를 위한 집중 기도가 필요한 분이 있으면 먼저 그를 위해 다함께 기도 3) 문제를 맡기며 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 나눈 기도제목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4) 올 한해 믿음으로 성장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기도 5) 교회와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담임목사님을 위한 기도 6) 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7) 리더가 축복하며 마무리기도
7. 공지사항	
8. 주기도문	

제목: 신자의 성화 본문: 롬8:12-14

오늘 본문은 신자의 거룩한 삶, 곧 성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는 육신에게 저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의 악한 행실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신자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자의 성화, 곧 거룩한 삶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신자의 성화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첫째, 주님은 성화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생 이루어가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신자는 몸의 행실을 날마다 죽여야 하고 그 일을 일생 계속해야 합니다.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였다"고 증거하는데 이 말은 바울이 날마다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 힘썼다는 의미입니다.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도 한순간에 성화 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힘씀으로 조금씩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부터 성화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육신의 소욕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뜻을 따라 살기 위해 몸부림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성령세례 체험으로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성화에 왕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주님은 성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자가 육신대로 사는 것은 곧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대로 사는 것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보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자가 육신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육신에게 저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계속 살면서 회개도 전혀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육신대로 산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씀으로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셋째, 주님은 성화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신자는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자의 성화는 신인(神人)협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의 성화는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게 몸의 악한 행실을 제어하도록 도우시고 나는 그 도우심을 힘입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나는 그 도우심을 힘입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경배와 찬양♫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원제:부흥 2000)

고형원

D A/C# Bm Bm/A G D/F# Em A⁷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 이땅 흔들며 잉 하소서 -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 하늘 가르 고 잉 하소서 -

1. D F#m Bm Bm/A Gmaj A⁷ D
 거 것과 탕 욕 죄 악에 무너진 - 우리가 숨 켜게 하소서

2. D F#m Bm Bm/A G A⁷ D G A⁷
 거룩한 불꽃 - 하늘 로서 잉 하사 - 타오 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 해

D A/C# Bm Bm/A G A D
 부흥의 불길 - 타오 르게 하소서 - - 진리 의 말씀 - 이 땅 새 롭 게 하 소 서

D A/C# Bm Bm/A G E⁷/G# A⁴ A⁷
 은혜의 강물 - 흐 르 게 하 소 서 - - 성령 의 바 랑 - 이 땅 가 득 불 어 와

G A F#m Bm G A⁷ D
 환 웃 입 - 은 주 의 순 결 한 백 성 주 의 영 광 위 해 이 제 잉 어 나

G A F#m Bm G A⁷ G/D D
 열 방 을 - 치 유 하 며 행 전 하 는 영 광 의 그 날 을 주 - 소 서

♫경배와 찬양♫

283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통 183)

E. O. Excell, 1884
 보통으로

그 이상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참 1:14)

OTHELLO: 8.6.8.6. REF.
 E. O. Excell, 1884

F C F C F Gm F C7 F
 1. 나 속 죄 함 을 받 은 후 한 없 는 기쁨 을
 2. 나 속 죄 함 을 받 은 후 후 후 내 심 로서
 3. 나 속 죄 함 을 받 은 후 후 후 내 심 로서
 4. 나 속 죄 함 을 받 은 후 후 후 내 심 로서

F C F Gm F C7 F
 다 해 아 리 수 없 어 서 늘 찬 송 합 니 다
 주 뜻 온 줄 준 자 은 하 된 것 으 니 죄 곧 는 평 안 합 니 다
 내 주 님 의 은 혜 없 어 면 서 죄 곧 는 평 안 합 니 다

후렴
 나 속 죄 받 은 후 나
 나 속 죄 받 은 후 나 속 죄 받 은 후
 속 죄 받 은 후 주 를 찬 미 하 겠 네 나 속 죄 받 은 후
 나 속 죄 받 은 후 나
 후 주 의 이 름 찬 미 하 겠 네
 속 죄 받 은 후

I have a song I love to sing

거듭남

구역 모임 교안 2024.07.14

1. 아이스 브레이크	<p>*눈치게임: 모인 사람의 숫자만큼(예:5명이 모였으면 4번까지) 서로 눈치를 보면서 일어나거나 번호를 외치며 손뼉을 치는 게임입니다.</p> <p>*별칭 해당자: 마지막까지 번호를 외치지 못하거나 일어나지 못한 사람, 동시에 같이 외치거나 함께 일어나는 사람</p>
2.찬양과 경배	뒷면의 찬양 또는 준비해 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시간 성령님의 크신 임재를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3.기도 (통성으로)	다함께 구역예배와 모임을 위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고 인도가 마무리 기도를 드립니다. (2번 찬양과 경배와 3번 기도는 연결하여 진행)
4.은혜의 나눔	한 주 동안 은혜 받은 내용이나 응답받은 기도제목에 대해서 구역 식구들 앞에서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5.말씀의 나눔	<p>본문: 로마서 8장 12-14절</p> <p>제목: 신자의 성화</p>
6.질문과 나눔	<p>1) 자신이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지금 자신에게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모습이 더 있습니까?</p> <p>2) 바울이 날마다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켰다는 말씀이 어떻게 다가옵니까?</p> <p>3) 말씀을 듣고 새롭게 깨달은 것이나 결단한 것을 나누어 봅시다.</p>
7.증거	<p>1) 각 태신자와의 관계맺기 현황과 기도제목 나눔.</p> <p>2) 전도 대상자를 생각나게 하시며, 만나게 하시고, 전도가 되도록 기도.</p> <p>3) 구역 결석자, 구역모임 결석자에 대한 관심과 기도.</p>
8.치유와 회복의 시간	<p>1) 각자의 긴급하거나 중요한 기도제목을 나눕니다.</p> <p>2) 치유집중기도: 치유를 위한 집중 기도가 필요한 분이 있으면 먼저 그를 위해 다함께 기도</p> <p>3) 문제를 맡기며 : 서로 나눔 기도제목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p> <p>4) 올 한해 믿음으로 성장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기도</p> <p>5) 교회와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담임목사님을 위한 기도</p> <p>6) 구역의 활성화를 위해</p> <p>7) 리더가 축복하며 마무리기도</p>
9.광고 및 주기도문	

제목: 신자의 성화 본문: 롬8:12-14

오늘 본문은 신자의 거룩한 삶, 곧 성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는 육신에게 쳐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의 악한 행실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신자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자의 성화, 곧 거룩한 삶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신자의 성화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첫째, 주님은 성화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생 이루어가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신자는 몸의 행실을 날마다 죽여야 하고 그 일을 일생 계속해야 합니다.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였다”고 증거하는데 이 말은 바울이 날마다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 힘썼다는 의미입니다.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도 한순간에 성화 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힘씀으로 조금씩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부터 성화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육신의 소욕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뜻을 따라 살기 위해 몸부림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성령세례 체험으로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성화에 왕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주님은 성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자가 육신대로 사는 것은 곧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대로 사는 것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보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자가 육신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육신에게 쳐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계속 살면서 회개도 전혀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육신대로 산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씀으로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셋째, 주님은 성화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신자는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자의 성화는 신인(神人)협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의 성화는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게 몸의 악한 행실을 제어하도록 도우시고 나는 그 도우심을 힘입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나는 그 도우심을 힘입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경배와 찬양♫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원제: 부흥 2000)

고형원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 이땅 흔들며 임 하소서 -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 하늘 가르 고 임 하소서 -

1. 거 짓과 탐 욕 죄 악에 무너진 - 우리가 숨 정계 하소서
 2. 거룩한 불꽃 - 하늘 로서 임 하사 - 타오 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 해

부흥의 불길 - 타오 르게 하소서 - - 진리 의 말씀 - 이 땅 새 롭 게 하 소 서
 은혜의 강물 - 흐 르 게 하 소 서 - - 성령 의 바람 - 이 땅 가 득 불 어 와

흰 옷 입 - 은 주 의 순결 한 백성 주 의 영광 위 해 이 제 일 어 나
 열 방 을 - 치 유 하 며 행 진 하 는 영 광 의 그 날 을 주 - 소 서

♫경배와 찬양♫

283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통 183)

E. O. Excell, 1884
 보통으로

그 이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딤후 1:14)

OTHELLO: 8.6.8.6. REF.
 E. O. Excell, 1884

1. 나 속 죄 함 을 받 은 후 한 없 는 기쁨 을
 2. 나 속 죄 함 을 받 은 후 후 후 내 심 없 는 새 로움 을
 3. 나 속 죄 함 을 받 은 후 후 후 내 심 없 는 새 로움 을
 4. 나 속 죄 함 을 받 은 후 후 후 내 심 없 는 새 로움 을

다 해 아 리 수 없 어 서 늘 찬 송 합 니 다
 주 뜻 온 줄 자 은 행 하 면 서 죄 곧 평 안 합 니 다
 내 주 의 은 혜 없 어 서 죄 곧 평 안 합 니 다
 나 속 죄 받 은 후 나 속 죄 받 은 후
 나 속 죄 받 은 후 나 속 죄 받 은 후
 나 속 죄 받 은 후 주 를 찬 미 하 겠 네 나 속 죄 받 은 후
 나 속 죄 받 은 후 주 의 이 름 찬 미 하 겠 네
 나 속 죄 받 은 후

I have a song I love to sing

거듭남